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상'

RFID·TV용 필름 70억 매출 목표 완도 김 등 특산품 쇼핑몰·軍 납품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4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임충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오종대 대진식품 대표이사, 김유신 (주)티디엘 대표이사,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주)TDL' 김유신 대표

일반적으로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TDL(True Digital Leader)의 김유신 사장은 "IT는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의 결합이며, 그래야 비약적 발전이 있다"고 확신한다.

TDL은 지난 2004년 광주시 서구 양동 금호생명빌딩 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회 입주기업으로 시작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으로 자가점착보호필름,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유지보수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사업 다각화와 함께 매출도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18억여원이던 매출이 2009년 19억여원, 지난해 20억여원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플라스틱 사출 업체인 GLF를 인수,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1년여 연구개발 끝에 지난해 11월 LCD TV와 LED TV의 필수 소재인 자가점착보호필름을 생산,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다.

TDL은 주력 사업인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 솔루션 개발과 제조업 분야에서 TV 필수 소재인 자가점착보호필름 생산을 강화해 올해 지난해보다 250% 증가한 70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자가점착보호필름은 광학용 소재 표면 보호와 정전기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 제품이다.

TDL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지난 2005년 벤처기업 인증과 2008년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과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품질 및 기술 투자를 강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유신 사장은 "IT분야의 틈새시장을 이용해 대기업과 상생하는 한편 TV용 필름 생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TV 필수 소재인 자가점착보호필름 생산을 강화해 올해 매출과 고용을 2~3배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대진식품' 오종대 대표

"김은 햇볕을 많이 받아야 맛이 살아납니다."

완도군 군내리 대진식품은 수산물 가공업체로는 드물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둬 현대인의 입맛과 수산물 고유의 영양을 공급하는 건어물 유통전문기업이다. 주요 생산품은 조미김과 마른김, 건어물 등이다. 특히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청정해역 완도 특산품만을 사용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높다.

대진식품은 지난 1978년 설립했다. 1999년 우체국 쇼핑에 납품한 데 이어 2001년 까다롭기로 유명한 군납 위생심사를 통과해 군대에 납품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G마켓에도 입점했다.

오종대 대표이사는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철저한 위생관리가 생명"이라며 위생 및 자동화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제품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최근 함초를 이용한 다이어트김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진식품은 지난 2008년 4억여원이던 매출이 2009년 5억여원, 지난해 6억여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내수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시장에도 진출,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됐다.

대진식품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한국산업규격 표시(KS)인증 등 다수의 국가 공인 인증을 획득,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2008)과 이노비즈 기업(2010)으로도 선정됐다.

이 회사는 조미김 가공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해태가공업협동조합와 완도 생산자 간 직거래도 주선하고 있다. 오 대표이사는 "직거래는 생산자의 경우 좋은 가격에 김을 제공하고, 조미김업체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생산자-소비자 모두 윈윈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경련 허창수號 출범

허 회장 "경제 대국 진입 아이디어 내고 실천"

재계 서열 7위인 GS그룹의 허창수 〈사진〉회장이 제33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전경련은 24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허 회장을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전경련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조석래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후임 추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17일 회장단 및 고문단 회의에서 허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었다. 허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전경련의 존립 가치를 실현하는데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경련이 앞장서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적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으로 가는 길을 열고자 경제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전략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민간 경제외교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 국가적 과제를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조석래 효성 회장은 이임사에서 "전경련 회장으로 일한 4년 동안 회원사와 회장단, 고문단 등의 도움으로 전경련과 재계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면서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경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만 선진 경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총회에서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특히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경제·산업 정책 비전제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정책제안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허창수 신임 회장을 비롯해 조석래 회장, 강신호 회장, 손길승 회장, 박용현 회장, 박영주 회장, 김윤 회장 등 회장단과 회원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3월중 中企 경기 더 나빠진다

1400여곳 조사 … 업황전망지수 97.8

다음달 중소기업 경기가 이달에 비해 다소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 제조업체 14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업황전망건강도 지수(SBHI)가 97.8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SBHI가 100 이상이면 다음달 경기가 이달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더 많았음을 뜻한다.

중앙회 측은 "3월 업황은 SBHI가 기준치를 밑도는 97.8을 기록해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2월 SBHI가 91.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긍정적인 전망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112.7), 목재 및 나무제품(108.1), 음료(104.9) 등의 업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는 토목·건설 등 일부 업종의 비수기 종료, 신학기 효과 등 계절적 요인, 자동차 업종의 내수 및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반면 식료품(82.9), 가구(86.5), 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89.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89.6) 등은 업황 전망지수가 낮았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49.88 (-11.75)
▼ 코스닥지수	501.11 (-6.05)
▼ 금리 (국고채 3년)	3.81% (-0.08)
▲ 원·달러 환율	1,131.20원 (+7.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中企 인사담당자 60%

"올해 연봉 올랐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60%가 올해 직원 연봉에 대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직원 연봉을 지난해보다 인상했다'는 응답자가 60.6%를 차지했으며 '동결했다'(33.2%) '삭감했다'(6.2%) 등으로 답변이 나왔다.

연봉인상을 결정한 업체들의 평균 인상률은 6.4%로 집계됐다. 연봉협상에서 주로 반영되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52.3%가 '기업 연매출 및 재정형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1,950선 '붕괴' … 환율 1,130원대 진입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주가와 환율 변동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1.75포인트(0.60%) 내린 1,949.88로 마감됐으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20원 오른 1,131.20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국내 항공사 젊어진다

아시아나 등 신형 기종 도입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가 확 젊어진다.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신형 항공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보유한 전체 항공기 평균 연식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8대의 신형 항공기를 들여온다. 지금까지 연간 최다 도입량은 17대로 올해 가장 많은 신형기를 들여오는 셈이다.

그 중심에 '하늘의 특급호텔'로 불리는 2층짜리 A380이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5월부터 일등석 12석과 프레스티지석 94석을 포함해 총 407석 규모의 A380 5대를 차례로 도입한다. 이 여객기는 6월부터 노선에 투입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A320/321 기종 2대와 A330 1대 등 3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유 항공기는 모두 72대가 된다.

이들 항공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신형 항공기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39대의 신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부터 4년간 A380 6대를 차례로 들여오며, 2016~2022년 기간엔 친환경·고효율 항공기인 A350XWB 30대를 도입해 주력 기단으로 구성한다.

/연합뉴스

이 공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사랑의열매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0년도 한 해 3,395억 모금하여 2만5천여개 복지기관 및 단체, 400만명의 소외계층, 2천여개의 사업에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총3,395억원(연간목표액102%달성)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전했다. 2009년도 연간 모금액 총3,318억원 보다 7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올해는 여느 해보다 활발했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2009년도 대비12.5%/489억원 증가)을 비롯하여 '씀씀이를 줄여 봉사하자, 나눔에는 귀천이 없다' 라는 생활신조 아래 폐휴지와 우유병을 모은 돈을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한 안양의 우유병할아버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 소중한 성금을 전달한 인천 쪽방촌 무료급식 이용주민 등 우리주변 소외계층의 따뜻한 정성이 사랑의온도계를 높여주었다.

이렇게 2010년도 한 해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인 성금은 2만5천여개의 기관, 400만명의 소외계층, 2천여개의 복지사업에 지원되었다. 세부 지원내역은 아동청소년분야(581여억원), 장애인분야(284여억원), 노인분야(285여억원), 지역사회분야(1,439여억원), 여성/가족분야(121여억원), 해외/기타(708여억원)로 총3,421여억원에 이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모금 및 배분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오는 3월부터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에 대한 지원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부자피드백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지난 2월1일에는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16개 지회를 13개지회로 통합 및 축소하였다. 또한 한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된 직원의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과 중앙과 지회의 간부급 직원을 전면 교체하는 등의 인적쇄신을 단행하였다.

국민 여러분의 성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아동청소년 – 돌봄, 아동 · 청소년을 위한 미래투자 (58,186,364,219원)
주요사업: 청소년 취업교육과 일자리 자립지원, 희귀난치병 등 의료비 및 보건위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기초생활 지원, 빈곤가정 아동 학습능력 향상 및 문화생활 지원, 노후 아동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지원, 학대아동 보호 쉼터 및 야간보호,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 지원, 청소년 및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장애인 – 차별이 아닌 차이, 생각바꾸기 및 자립지원 (28,433,712,702원)
주요사업: 장애인 취업훈련 및 일자리 마련, 중증장애인 재활 및 의료서비스, 빈곤가정 장애인의 기초생활지원, 장애인 재활교육과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 장애인 가족강화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노인 – 고령사회, 노인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 (28,570,545,506원)
주요사업: 노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 노인성 질환 치료비 지원, 독거노인 반찬배급, 무료급식 등 생계 지원, 노인의 정서지원 및 여가활동 지원, 노인복지시설 편의환경 조성,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노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안전망 구축, 노인인식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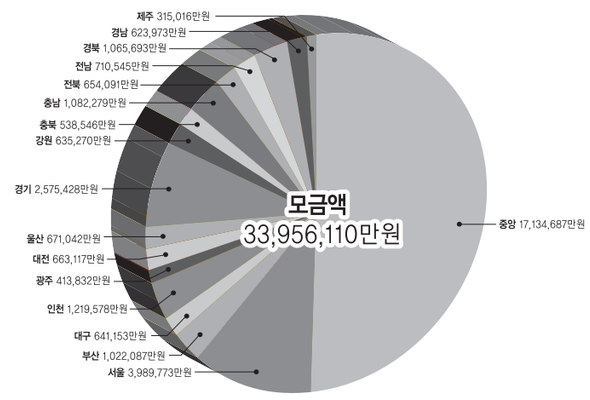
여성/가족 – 여성과 가족이 활짝 웃는 나라 (12,080,114,255원)
주요사업: 여성가장 일자리 등 자립지원, 빈곤여성 출산 및 육아등 지원, 빈곤여성 가장의 생계비 지원, 빈곤여성 취업교육과 문화활동, 여성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가정 폭력 피해여성 보호, 미혼모 등 사회성 향상, 성차별 인식개선,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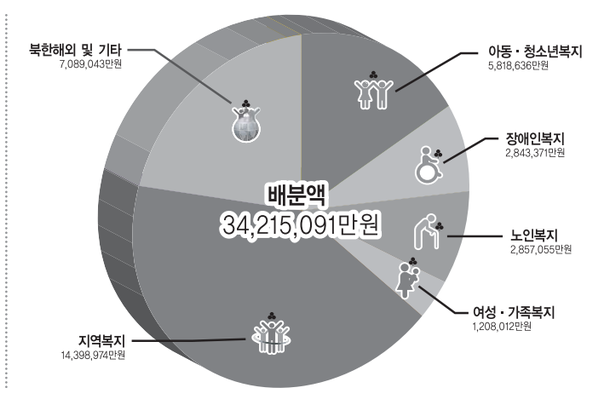
지역사회 – 이웃사촌과 함께하는 공동체 (143,989,744,088원)
주요사업: 소액금융 지원 등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빈곤가정 의료비지원, 푸드마켓 등 빈곤층 기초생활지원, 저소득층 직업교육 및 문화활동, 사랑의 집고치기 등 주거환경개선, 노숙인 주거복지 및 빈민 주택신축 등, 빈민 구호를 위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지원, 의료소외계층 무료이동진료, 명절 빈곤계층 생필품 지원,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보호를 위한 공동 주거공간 확보

해외(북한)/기타 – 함께하는 세계, 우리 이제 가까이 (70,890,430,363원)
주요사업: 저개발 국가 취업교육 및 일자리지원, 해외 무료진료, 재난재해 국가 빈민구호, 빈곤국가 어린이교육, 우물 파기 등 생활환경 개선, 재난재해 이재민 임시 보호, 빈곤국가 가정생활 기능 강화, 해외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0년도 모금 및 배분현황

▶ 지면관계상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7 사랑의열매회관 6층, 대표전화 02-6262-3000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